

1.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Welcome to becoming a member of Suwanee Full Gospel Church.
2. 당분간 유튜브 예배 송출은 중단되오니, 성도님들의 너른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예배 링크를 따로 원하시는 성도님은 담임목사님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Worship streaming on YouTube is paused for now. Appreciate your understanding.
3. 새벽예배와 금요성령대망회에 나오셔서 기도해 힘쓰는 교회가 됩시다.
Let us be a church devoted to prayer through the early morning service and the Friday Service.
4. 애찬표와 헌화표가 성전 입구 게시판에 있습니다. 자원하여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애찬은 **3구역**에서 섬겨주셨습니다.
다음주(8/31) 애찬은 **3040선교회**에서 섬겨주시겠습니까.
Donation sign-up sheets for our Lunch Ministry and Floral Offering are on the bulletin.
5. 담임목사님의 사역과 교회 부흥을 위해 항상 중보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pray for our senior pastor and the church.

2025년도 후원 선교지 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1. 필리핀 - 아시아중앙교회(ACC, 윤필립 선교사)
 2. 일본 - 고베 그레이스하모니교회(신동훈 선교사)
- 자세한 기도제목들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교회가 됩시다.

대표기도, 헌금기도, 안내 & 헌금 봉사

날짜	대표기도	헌금기도	안내 & 헌금봉사
8/31	이재영 목사	임창희 집사	정유니스 권사
9/7	정래열 장로	김수자 집사	YOUTH(이권, 정기주)
9/14	정대섭 목사	강예은 집사	YOUTH(이권, 정기주)

< 9월 안내 및 헌금 봉사자 - 이권, 정기주 >

* 봉사자와 중보기도를 원하시는 분들은 10:15am까지 오셔서 기도로 준비하십시오.
Volunteers, please arrive by 10:15am, prepare with prayer, and begin your service.

2025년 8월 24일 [제 39권 34호]

2025 성령님과 더불어 일어나 함께 가자!

RISE UP GO TOGETHER WITH THE HOLY SPIRIT

(Song of Songs 2:10)


 스와니순복음교회
SUWANEE FULL GOSPEL CHURCH


예배시간 안내

새벽예배 Morning Prayer Service	화 ~ 금 6:00 AM
주일예배 1부 (여의도순복음교회 주일 위성) Sunday Service, 1st	8:00 AM
주일예배 2부 Sunday Service, 2nd	10:40 AM
금요성령대망회 Friday Service	8:00 PM
주일학교 Sunday School	11:00 AM
Youth 예배 Youth Service	매월 2,4째주 11:00 AM
방송설교 Broadcast	(YOUTUBE - 유튜브 생방송) (주일, 새벽예배 Every Sunday, Mornig Prayer Service)

스와니순복음교회 7대 핵심가치

- ① 오종복음과 삼중축복, 절대긍정 절대감사를 통한 불변의 진리
- ② 순복음의 신앙을 기반으로 한 변하지 않는 사랑
- ③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있는 믿음
- ④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한 거룩함
- ⑤ 포기하지 않는 제자의 길
- ⑥ 모든 사역의 기반이 되는 끊임없는 기도
- ⑦ 성령충만을 통한 능력과 복음전파 (전도, 선교)

2025년 스와니순복음교회 7대 실천사항

- ① 변하지 않는 진리 가운데 서 있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자
- ② 주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헌신과 봉사를 이루자
- ③ 확실있는 믿음을 가정과 직장 가운데 나타내는 모범을 이루자
- ④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는 계속되는 도전을 이루자
- ⑤ 말씀으로 무장한 제자의 길을 위해 훈련하자
- ⑥ 매일 1시간 이상의 기도를 통한 주님과과의 소통을 이루자
- ⑦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는 복음전도자의 사명을 이루자

3268 Smithtown Rd Suwanee GA 30024

TEL : 770. 945.4447 C.P : 630.746.3197

www.suwaneechurch.org

예배로 부르심 다함께
Invocation Altogether

찬 송 8장 Hymm No. 8 다함께
Hymn 거룩 거룩 거룩 (4절) Altogether

사도신경 다함께
The Apostles' Creed Altogether

찬 송 찬 569장 (통 442장) 다함께
Hymn 선한 목자되신 우리 주 Altogether

대표기도 신해승 장로
Prayer Elder. H. S. Shin

함께 부르는 찬양 왕이신 나의 하나님 다함께
Anthem Altogether

성경봉독 1부 - 디모데후서(2Tim.) 3: 14~17 다함께
Scripture Reading 2부 - 히브리서(Heb.) 11:38 Altogether

설 교 1부 -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 1부 - 이영훈 목사
Sermon A Life of Victory Through the Word Rev. Y. H. Lee
2부 -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2부 - 담임목사
People of Whom the World Was Not Worthy Senior Pastor

헌금기도 박윤아 집사
Offering Prayer Deaconess. Park

헌 금 송 다함께
Offering Praise Altogether

광 고 담임목사
Announcement Senior Pastor

주기도송 주기도송(635) 다함께
The Lord's Prayer The Lord's Prayer Altogether

축 도 담임목사
Benediction Senior Pastor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하 스테반



Copyright (C) 1989 All Nations Music. Adm. By CopyCare Korea. Used by Permission.

사도신경 다함께
The Apostles' Creed
Altogether

찬양과 경배 다함께
Hymn
Altogether

설교 담임목사
Sermon
Senior Pastor

합심기도 다함께
Prayer
Altogether

축도 담임목사
Benediction
Senior Pastor

오늘의 양식 Today's Word

엄마의 심장 소리

병원 신생아실에서 흥미로운 장면이 종종 벌어집니다. 한 아기가 울기 시작 하면 마치 약속이나 한 듯 다른 아이들도 따라 읊니다. 간호사 한 명이 수십 명의 아기를 일일이 달래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연구진은 아기 들을 효과적으로 진정시킬 방법을 찾기 위해 다양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모차르트의 세레나데, 슈베르트의 자장가, 심지어 최신 육아용 멜로디까지 시도했지만 결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해답이 있었습 니다. 엄마의 심장박동 소리를 들려주자 아기들은 마치 마법처럼 금세 조용해 졌습니다. 그 단조로운 리듬 속에서 아이들 은 평온을 찾았고 자연스럽게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나기 전, 280일 동안 들어온 익숙한 이 소리는 아이에게 생존과 안전을 의미했습니다. 세상에 나온 후 낯선 환경에서 느끼는 불안과 두려움을 그 익숙한 소리가 달래준 것입니다.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복잡한 일상에 지칠 때, 누군가의 따뜻한 한마디나 조용한 동행은 어떤 화려한 위로보다 깊은 안정감을 줍니다. 단순히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복잡한 조언보다 더 큰 위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도 누군 가에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마음을 편하게 하고, 무엇보다 든든한 존재감으로 위로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기에게 엄마의 심장 소리가 그랬던 것처럼, 누군가에게는 우리의 진심 어린 관심과 변함없는 마음이 가장 큰 위안이 될 수 있습니다.

여의도순복음교회 “오늘의 양식” 에서

Schedule - 성경통독 및 일정

2025년 전성도 성경 2독 (매일 구약 6장, 신약 2장)

8/25(월)	8/26(화)	8/27(수)	8/28(목)	8/29(금)	8/30(토)	8/31(주일)
대하 13~18 롬 15~16	대하 19~24 고전 1~2	대하 25~30 고전 3~4	대하 31~36 고전 5~6	스 1~6 고전 7~8	스 7~10 고전 9~10	느 1~6 고전 11~12

날짜	9/7 (주일)
내용	성찬주일예배
장소	교회

지난 시간 우리는 로마제국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오해하고 혐오하던 사회적 분위기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대중의 인식은 대부분 그리스도교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되었다. 특별히 당시 교양인이라고 불리던 이교도 저술가 역사가 철학가들 가운데에서도 적지 않은 이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무분별한 고발들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며 자신의 저술이나 강연을 통해 재생산하고 있었다.

이에 맞서 그리스도교 신앙을 변호하고 더 나아가 그것이 참 진리임을 변증하려는 사람들이 속속 나타났는데 이들을 가리켜 우리는 '그리스도교 변증가'라고 부른다. 이번 글에서는 당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이에 대한 변증의 예들을 간략히 살펴보려고 한다.

<공격1> 그리스도인은 무식한 가난뱅이들이다!

'그들은 가난한 하층민들로부터 무식한 자들과 맹목적인 부녀자들을 굶어 모았다. 그들은 어리석고 모든 일에 잘 빠져드는 자들이다. 그들은 박해도 신경 쓰지 않는다. 현세의 죽음은 겁내지 않으면서 죽음 뒤의 죽음(죽음 이후의 심판)은 무서워 떠는 자들이다. 그들은 부활할 수 있다는 거짓된 희망을 품는 자들이다. 그들은 대부분 굶주리고 있으며 굶주린 배를 안고도 많은 노동을 한다. 그런데도 그들의 신은 그것을 허락한다. 그 신은 자신의 백성을 도울 수 없거나 도울 의지가 없는 것이므로 약해 빠졌거나 불공평한 신이 틀림없다.' - 프론토

[변증1] 가난은 수치가 아니라 명예로운 것이다!

'가난은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명예로운 것이다. 조금도 궁핍함을 느끼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른 이의 것을 탐하지도 않는 사람을 가난하다고 할 수 있을까? 이미 많은 것을 갖고도 더 가지려 애쓰는 자들이야말로 진짜 가난한 사람들이다. 만일 우리에게 무언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면 하나님께 구했을 것이다. 모든 것이 주께 속했으니 그 분은 분명 우리에게 주셨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수치스럽게 부를 얻으려고 사느니 차라리 그런 삶을 경멸할 것이다.' - 미누키우스 펠릭스

<공격2> 그리스도인은 무지한 자들이다!

'그리스도교인들의 가르침은 야만적이다. 그들의 윤리는 저속하고 다른 철학자들과 비교할 때 감동을 주거나 새로운 것이 아니다. 어떤 가르침을 받을 때 우리는 반드시 이성을 따라 판단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분명히 기만당하기 때문이다. 신비종교나 우상숭배가 그러한 좋은 예이다. 이러한 종교들은 사람들의 무지함을 이용하는데 그리스도인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무지 말고 믿어라' '너의 믿음이 너를 복되게 할 것이다'라고 가르치며 진리를 알고 질문하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알려고 들지 말라'고 가르친다.' - 켈수스

[변증2]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진리를 발견한 자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진리를 발견한 자이다. 그들은 서로 사랑한다. 그들은 과부를 경시하지 않으며 학대하는 자들에게서 고아를 구해낸다. 모든 이가 자신의 소유를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자에게 아낌없이 내어준다. 만일 여행 중인 사람을 만나면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여 진짜 형제를 대하듯 기쁨으로 대접한다. 만일 가난한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된다면 그들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그의 장례를 치러준다. 어떤 이가 그리스도를 위해 옥에 갇혔거나 핍박당할 때 모든 이들이 그의 필요를 돌보아준다. 그들 중 가난한 이가 궁핍에 처했음에도 그를 위해 내어줄 것이 없다면 그들은 가난한 이를 위해 2~3일씩 금식하고 이렇게 아껴서 마련한 양식을 가난한 이들에게 제공한다. 그럼에도 그들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선행을 큰소리로 알리지 않는다. 오히려 누구도 그 사실을 알아채지 못하도록 조심하며 마치 발견한 보석을 감추듯 선행을 숨긴다.' - 아리스티데스

마지막으로 아래에 소개할 글은 '디오그네투스에게 보내는 편지' 가운데 한 단락이다. 이 편지는 주후2세기 후반 한 무명의 그리스도인이 디오그네투스라는 이교도 로마인에게 그리스도인들을 변증하기 위해 보낸 글이다. 짧은 글 가운데 나타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에게 잔잔한 감동과 도전을 준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기에 서로를 향해 목숨을 아끼지 않고 사랑하는가?

'그리스도인들은 헬라의 도시든 야만인 도시든(그들의 운명이 정한 대로) 자기가 있는 곳의 풍습을 따르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서로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그들은 자기 나라에서 살지만 마치 지나가는 손님(타국인)처럼 삽니다. 다른 시민처럼 모든 것에 권리가 있지만 이방인처럼 아무런 혜택을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그들도 결혼하고 자식을 가집니다. 그러나 아기가 태어난 후에 그들을 버리는 일이 없습니다. 공동으로 식사하나(로마인들이 그러하듯) 침실을 나누어 쓰지 않습니다. 그들 역시 몸과 살을 가진 사람이지만 육신을 따라 살지는 않습니다. 이 땅에 살지만 그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법을 준수하나 법이 요구하는 그 이상을 살아갑니다. 모든 이들을 사랑하나 모든 이들로부터 핍박당합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알지 못하면서 비난합니다. 그들은 가난하지만 많은 사람을 부요케 하며 궁핍할지라도 풍요를 누릴 줄 압니다.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대신하여 일어서시며 사람들이 경멸해도 그들을 축복합니다. 그들은 선을 행하나 악인처럼 처벌받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을 때라도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부활을 믿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을 이방인처럼 공격하고 헬라인은 그들을 사냥감처럼 죽이려 달려듭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을 증오하는 그 누구도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할 만한 이유를 말하지 못합니다.'

- 디오그네투스(Diognetus)에게 보낸 편지 중